

# 2023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회복세,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sup>1)</sup>

김규철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kyoochul@kdi.re.kr

## I. 서론

2023년 북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다. 2022년 8월에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전 승리를 선언한 이후에도 여전히 방역과 관련한 경계는 유지하고 있으나 특이 동향은 확인되지 않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북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하반기 이후 2년 넘게 봉쇄되었던 국경이 개방되었고, 북중무역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에 2023년 무역액은 2022년 대비 2.4배를 기록하며 상당한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 시점인 2019년에 비해 2023년 무역액은 83% 수준에 그쳐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온전한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이라 할 수 있는 2018~19년에도 북한의 대외무역은 대북제재로 이미 크게 악화된 상황이었다. 대북 무역제재로 북한의 수출은 90% 이상 감소하였으며, 유류제품 수입 제한, 기계류 등 필수 중간재 및 자본재의 도입 금지로 북한의 산업 생산 활동 역시 큰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에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육로 국경을 봉쇄하여 물류 이동과 인적 왕래까지 중단시키면서, 북한의 무역은 극단적으로 감소했다. 이듬해인 2021년 북한의 무역액은 3.0억달러로 1990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2022년 1월에는 3년 만에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었고, 무역액 역시 점차 증가하며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2023년에는 일부 접경 지역에서 화물 트럭 운행까지 재개되면서 북한의 대외무역은 점차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코로나19

\*본 연구는 한반도경제협력원(2024) “북한경제 연례평가” 제1부 무역 분야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다.

이전과 비교해 보면 완연한 회복이라 보기는 어렵다. 2023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코로나19 이전 상황인 2019년을 웃돈 반면, 대중수입 규모는 여전히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출의 경우 북한 당국이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제재와는 무관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수출을 증가시켰던 반면, 수입은 외화 보유 여건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2023년 북한 무역은 육로 국경이 다시금 개방되어 화물열차 및 화물트럭이 운행되고 있어 외견상 코로나19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방역 기간 중에 무역법 등을 개정하였고, 최근 북한의 무역은 코로나19 이전과 달리 중앙의 통제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대북제재 이후 크게 감소한 북한의 외화 보유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중국해관통계에 기반하여 2023년 북한의 대중무역에 대해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개괄하고, 어떠한 상품이 주로 수출, 수입되었는지를 살핀다. 이를 통해 2023년 북한의 대중무역에 대해 분석한다. 대북제재 이후 북한 무역의 90% 이상이 중국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북한의 대중무역을 분석하는 것이 곧 북한의 무역을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고 있다는 다수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무역 분야에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전쟁 이후 러시아의 공식 교역 데이터는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무역 통계에 근거한 북러교역에 대한 수치화된 분석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언론 보도에 근거하여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 교류 및 교역에 대해 정리하여 북한의 대러교역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2023년까지의 북한 무역, 내부 경제상황, 한반도 주변의 외부적 요인에 근거하여 향후 북한 무역에 대해 전망한다.

## II. 2023년 북한의 對중국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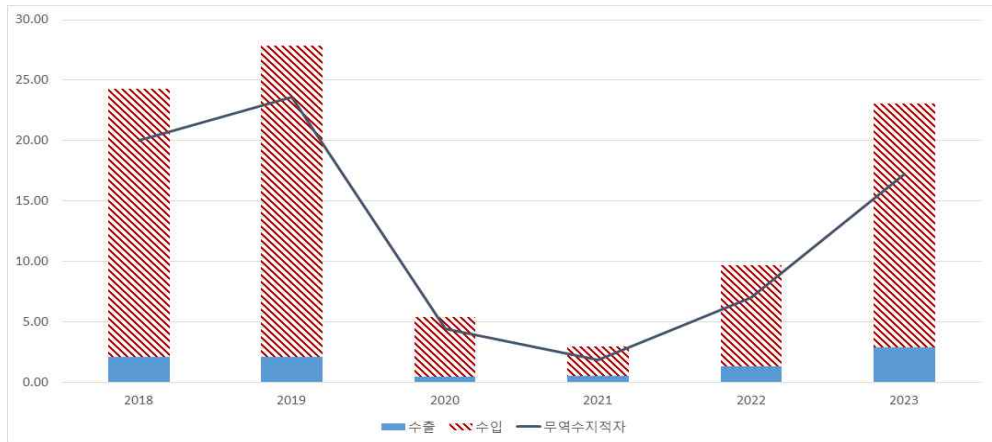
### 1. 북중무역 개괄

[그림 1]은 최근 6년(2018~23년) 북한의 대중 무역액(수출, 수입, 무역수지 적자)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이전 시기 북한의 대중무역 총액은 2018년에 24.3억달러, 2019년에 27.9억달러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북한과 중국의 육로 국경이 봉쇄됨에 따라 2020년에는 5.4억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2021년에는 2020년보다 더 줄어든 3.0억달러의 무역액을 기록하여 근래 가장 적은 수치로 나타났다. 2022년 북·중 무역액은 화물열차 운행 재개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9.7억달러로 기록되었다. 2023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2.9억달러, 수입액은 20.1억달러로, 총 무역액은 23.1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수출은 218%, 수입은 242%로,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무역액과 비교해 보면 2023년 무역액은 83%로 나타났다. 이를 수출과 수입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2023년 북한의 대중수출은 2019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인 2.2억달러를 상회하나, 2023년 북한의 대중수입은 2019년 북한의 대중 수입액인 25.7억달러에 여전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북한의 대중 수출, 수입 및 무역수지 적자

(단위: 억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4. 1. 22).

2023년 북·중 무역액은 2022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2021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경 개방 이후 북한경제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못 미치고 있으며, 비교 대상인 2019년 역시 대북제재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상적인 무역 및 경제 상황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육로 국경이 봉쇄되었던 2020~21년 상황에 비해 2022년 하반기 이후 북중교역이 회복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역 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회복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북한 당국의 외화 수급 상황, 미중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내외부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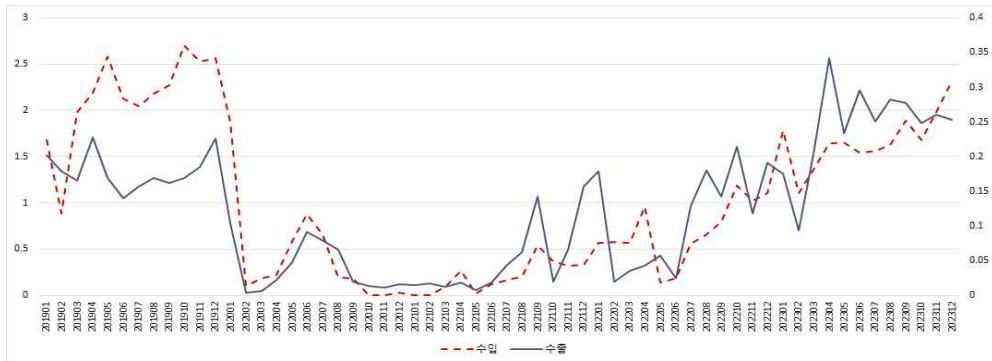
따라 북한의 대외무역 역시 변동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폭은 코로나19 이후 무역액이 감소하면서 크게 줄어들었으나 (2019년 23.6억달러, 2020년 4.4억달러, 2021년 1.8억달러), 2022년 이후 북중 육로 교역이 재개되어 교역액이 증가하면서 다시 확대되고 있다. 2023년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17.2억달러로 나타났다.

[그림 2]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월별 북·중 무역액 추이를 보여준다. 2019년에는 월평균 수출이 0.18억달러, 수입이 2.14억달러 수준이었으나, 2020년 국경봉쇄로 북한의 수출과 수입 모두 급락한 모습을 볼 수 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북한의 대중무역의 회복세가 2023년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3년 북한의 월평균 대중 수출액은 0.24억달러, 수입은 1.68억달러로, 수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늘었으나, 수입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2] 북한의 월별 대중 수출액, 수입액

(단위: 억달러)



주: 수입은 좌축, 수출은 우축.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4. 1. 22).

코로나19 기간에 북한의 대중무역은 여러 부침을 겪었다. 2022년 1월에 2년 만에 단둥-신의주 간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면서 무역액이 증가했으나, 4월에 단둥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며 북·중 육로 국경이 다시 봉쇄된 바 있다. 5월에는 북한에 코로나19 확진 의심환자(유열자)가 발생하면서 철도 운행이 다시 중단되면서 교역액이 크게 줄었다. 7월부터는 해상을 통한 북중교역이 활성화되면서 교역액이 증가하였다. 2023년에는 단둥-신의주 간 철도 운송 외에도 나선-훈춘, 무산-난평 통상구 사이의 화물 트럭 운행 재개 및 북한 당국의 외국인 입국 허용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중교역이 이전과 같이 활기를 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되기도 했다.<sup>1)</sup> 그러나 북중교역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단둥-신의주 간 화물 트럭 운행이 여전히 중단된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공무나 비즈니스 목적의 외국인 입국은 허용되었으나 관광 목적의 입국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어 북한의 대중국 무역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부정적인 시각 역시 존재한다. 북한과 중국이 공동 투자한 신압록강대교의 개통이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sup>2)</sup>와 개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는 보도<sup>3)</sup>가 모두 존재하여 북·중 접경 지대에서도 북중무역의 전망에 대한 합의된 의견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북중교역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해상 운송보다는 육상 운송이, 육상 운송 중에서도 철도 운송보다는 트럭 운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둥-신의주 간 트럭 운송 재개 여부와 신압록강대교의 개통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중교역의 경우 선박을 통한 해상 운송에 비해 철도, 트럭을 통한 육상 운송이 비용이 적게 들고, 더 많은 상품을 실어 나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sup>

## 2. 주요 상품별 분석

### 가. 북한의 대중 수출품

2023년 북한의 주요 대중국 수출 상품을 정리하면 <표 1>로 나타낼 수 있다. 표에는 2023년 수출액(A)과 비중, 2022년 수출액(B)과 비중, 그리고 2022년 대비 2023년 수출액 비율(A/B)이 포함되어 있다.

<표 1> 2023년 북한의 주요 대중국 수출 상품

순위	HS code	품목	2023년 수출액 (A)	2022년 수출액 (B)	(A/B)*100
1	6704	가발, 가수염 등	1억 6,674만달러 (57.1%)	1,157만달러 (8.7%)	1,442%
2	7202	합금철	3,206만달러 (11.0%)	2,695만달러 (20.2%)	119%
3	2611	텅스텐광과 그 정광	2,594만달러 (8.9%)	3,092만달러 (23.1%)	84%
4	2716	전기에너지	2,226만달러 (7.6%)	2,039만달러 (15.3%)	109%
5	2613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	717만달러 (2.5%)	1,366만달러 (10.2%)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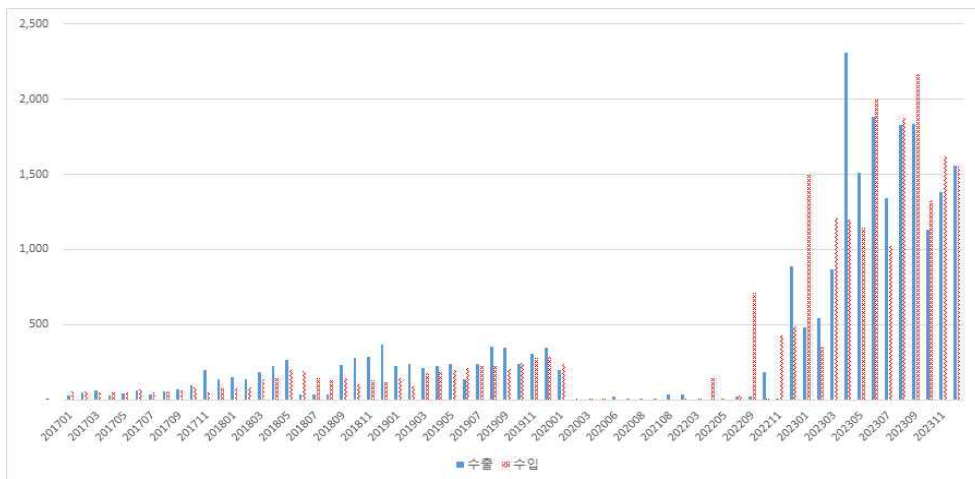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4. 1. 22).

1) [다시열린 중국경 르포] '홍춘~北나선 육로통행 부분 재개'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8028100097>).  
 2) '북·중 잇는 신압록강 대교 차량 이동 급증~개통 임박'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4040000009?section=nk/news/economy>).  
 3) [르포] '신압록강대교 개통 임박이요? 현지 실정 모르는 소리'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0124700097>).  
 4) 김규철(2023).

2023년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가발, 가수염(HS 6704)’으로, 1억 6,674만 달러를 수출했다. 해당 품목의 2022년 수출액은 1,157만달러에 불과했는데, 2023년에 14배 이상으로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림 3]은 2017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가발, 가수염의 수출과 수입의 월별 추세를 보여준다.

[그림 3] 북한의 대중 가발, 가수염 수출액과 수입액

(단위: 만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4. 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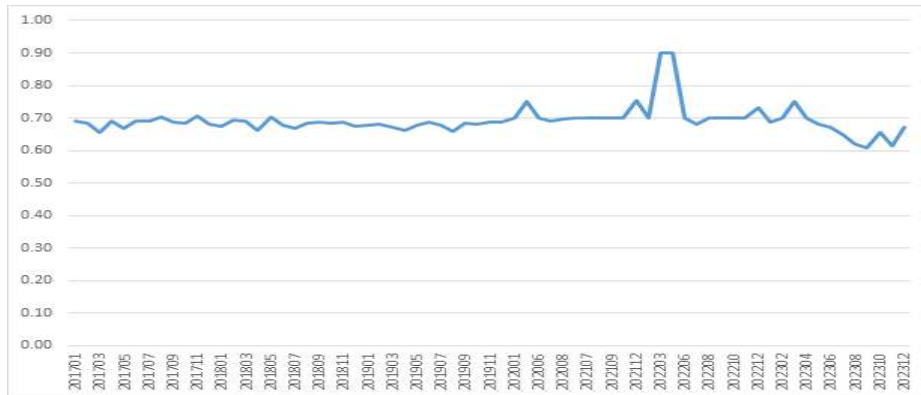
코로나19 이전 시기까지만 해도 월간 500만달러에 못 미치던 수출, 수입액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거의 교역이 미미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해당 상품의 교역액은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2022년 10월 수출액이 183만달러로 기록된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수출되어 2023년 최대 수출품으로 부상하였다. 2023년 가발과 가수염의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57.1%로 나타나 2위 수출품인 합금철의 수출 비중(11.0%)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가발, 가수염의 수입(같은 HS code이나 임가공 수출을 위한 원료) 역시 2022년 9월 이후 최근까지 매달 지속되고 있어 해당 상품은 향후에도 주요 임가공 수출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 이후 제재 대상 품목인 임가공 의류를 대신하여 가발과 가수염이 대체 수출품으로 각광받았고, 코로나19 이후 대표 수출 상품으로 떠오른 것이다.

북한이 2023년에 중국에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한 품목은 ‘합금철(HS 7202)’로, 수출액 3,206만달러를 기록했다. 합금철은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이 감소하긴 하였으나 일정 수준의 물량과 금액이 꾸준히 수출되었다. 세부품목으로 보면 페로실리콘(규소철, HS 720221,

720229)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는 HS code 72(철강) 전체를 제재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합금철은 제재 대상 품목에 속한다. 중국은 북한으로부터의 합금철 수입을 지속하고 있는데, 페로실리콘이 철강(HS 72)이 아닌 실리콘이라고 주장하며 제재 대상 품목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sup> [그림 4]에 나타난 것처럼 2017년 이후 약 0.70USD/kg으로 유지되던 합금철의 대중 수출가격(중국의 대북 수입가격)이 2023년 하반기 이후 하락하는 추세로 확인되어, 해당 품목의 가격 변동과 이에 따른 수출 물량 및 수출액 변동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림 4] 북한의 대중 합금철 수출가격

(단위: USD/kg)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4. 1. 22).

북한의 대중국 수출 3위 품목은 ‘텡스텐광과 그 정광(HS 2611)’으로, 2,594만달러를 수출했다. 텡스텐광과 그 정광은 2022년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이었다. 2023년 수출액은 전년에 비하면 줄었으나 코로나19 이전(2018~19년)의 연간 수출액 평균인 1,541만 달러 보다는 여전히 큰 값을 기록하였다. 해당 상품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상품으로, 제재 이후 수출액이 크게 늘었으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줄었고, 2022년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며 수출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품목으로 대중국 수출 5위 상품인 ‘몰디브덴광과 그 정광(HS 2613)’이 있다. 무연탄과 철광석 등 주요 광산품의 수출이 제재로 막히자 북한 당국은 텡스텐광과 몰디브덴광 등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광물을 대체 수출품으로 발굴하여 외화 획득을 늘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상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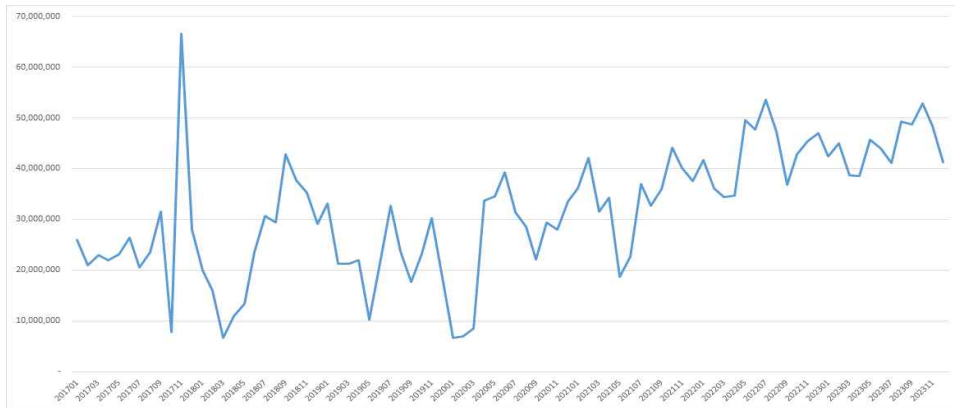
5) 김규철(2022).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전망된다.

2023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 4위 품목은 ‘전기에너지(HS 2716)’로, 수출액 2,226만달러, 비중 7.6%를 차지했다. 전기에너지는 선박, 열차, 트럭을 통한 운송이 아닌 전선을 통해 수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 국경봉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품이다. 게다가 대북제재에도 저촉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출한 상품이다. [그림 5]는 2017년 이후 최근까지 북한의 대중 전기에너지 수출 물량의 추세를 보여준다. 특징적인 점은 2020년 이후 북한의 전기에너지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전기에너지 수출을 증가시킨 것은 제재로 무연탄 수출이 막히자 이를 화력발전으로 돌리고,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5] 북한의 대중 전기에너지 수출 물량

(단위: kWh)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4. 1. 22).

그 외에 북한의 수출품 중 눈여겨볼 만한 품목은 다음과 같다.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HS 9108)’는 대북제재 이후 코로나19 이전 시기 가발, 가수염과 함께 최대 수출품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수출이 크게 감소한 품목이었다. 2022년 수출액은 179만달러에 그쳤으며, 2023년에도 406만달러로 코로나19 이전 평균 연간 수출액인 4,015만달러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해당 상품의 원재료인 시계부품(HS 9114)의 수입이 2023년 5월 이후 증가세로 나타났다. 5월 이후 시계부품의 수입액은 401만달러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물론 이는 제재 이후 코로나19 이전인 2018~19년에 비하면 많은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2023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수입이 재개되었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2024년 이후로는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 수출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간소화된 통관절차 중 저가제품(HS 9804)’의 수출은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연간 340만~700만달러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급감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은 대규모 교역품이 아닌 주로 인적 왕래 중 세관에 신고되는 품목을 의미한다. 2019년에는 700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3.2%나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340만달러, 2021년에는 1만달러, 2022년에는 0.6만달러로 국경봉쇄 이후 해당 제품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바 있다. 2023년 해당 제품의 수출액은 2만달러 수준으로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 열차나 트럭을 통한 물류 이동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인적 왕래가 여전히 제한된 상황임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 나. 북한의 대중국 수입품

2023년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 품목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플라스틱 제품(HS 39)’의 경우 HS code 2단위로 나타내는 것이 상품의 의미를 더 잘 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고, 나머지 품목은 4단위로 분류하였다.

<표 2> 2023년 북한의 주요 대중국 수입 상품

순위	HS code	품목	2023년 수입액 (A)	2022년 수입액 (B)	(A/B)*100
1	39	플라스틱 제품	2억 1,161만달러 (10.5%)	1억 1,036만달러 (13.2%)	192%
2	6703	가발용 재료	1억 6,020만달러 (8.0%)	717만달러 (0.9%)	2,234%
3	1507	대두유	9,091만달러 (4.5%)	4,078만달러 (4.9%)	223%
4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직물	8,090만달러 (4.0%)	2,976만달러 (3.6%)	271%
5	3105	광물성 비료	8,066만달러 (4.0%)	1만달러 (0.0%)	786,896%
6	1006	쌀	7,681만달러 (3.8%)	3,321만달러 (4.0%)	231%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4. 1. 21).

북한의 2023년 대중국 수입 1위 상품은 ‘플라스틱 제품(HS 39)’으로, 수입액 2억 1,161만달러를 기록하였다. 해당 수치는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이 봉쇄된 2020년 이후 최대치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입액인 2억 7,310만달러의 77%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3년의 수입액은 2020년, 2021년 수입액의 6배 수준이며, 2022년에 비해서도 92%나 증가한 것으로, 플라스틱이 주로 산업의 중간재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2022년 이후 북한의 산업 생산이 회복세로 돌아섰고, 2023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플라스틱 제품을 일차제품(HS 3901~3914)과 가공제품(HS 3915~3926)으로 구분하여

수입액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림 6]과 같다. 국경봉쇄 기간(2020~22년) 동안 플라스틱 일차제품의 비중은 상승하고, 가공제품의 수입 비중은 감소하였다. 이는 가공제품의 수입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국산화를 통해 외화 유출을 최소화하려는 북한 당국의 의도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2023년에는 플라스틱 가공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고, 가공제품의 비중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 내부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생산 여력이 부족한 상품을 다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을 의미하며, 여전히 북한의 국산화 수준이 충분치 않음을 보여준다.

2023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 2위 품목은 ‘가발용 재료(HS 6703)’로, 수입액은 1억 6,020만달러, 비중은 8.0%로 나타났다. [그림 3]에 나타난 것처럼 2022년 하반기 이후 북한의 주요 수출품으로 급부상한 ‘가발, 가수염’의 재료의 수입이 같은 시기부터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HS code 4단위 기준으로 하면 최대 수입품으로 나타났다. 2023년 최대 수출품과 최대 수입품이 모두 가발, 가수염인 것이다. 해당 상품의 수입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들 상품의 수출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북한의 플라스틱 제품(HS 39)의 가공 단계별 수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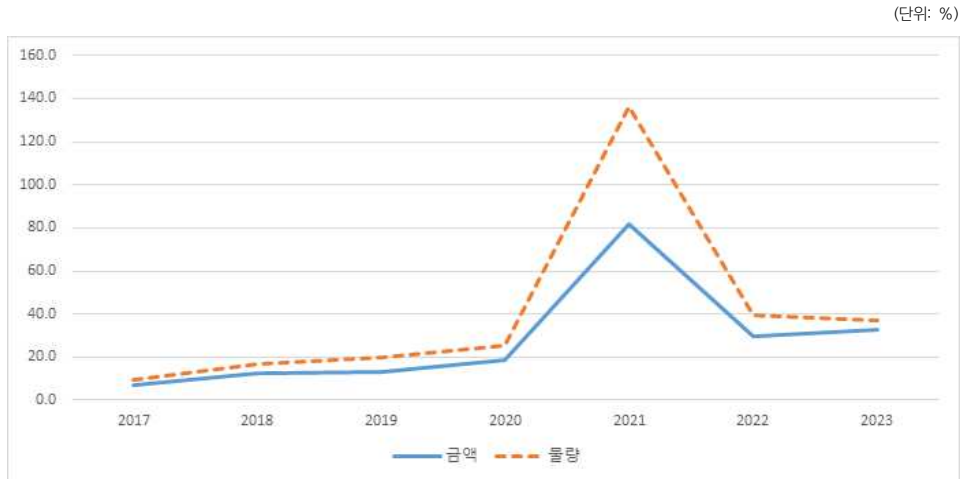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4. 1. 22).

‘대두유(HS 1507)’가 2023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 3위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액은 9,091만달러를 기록했다. 대두유 이외에도 팜유, 설탕, 조미료 등 주요 식료품의 수입은 2021년 이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북한주민의 식생활 수준은 코로나19 기간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두유의 재료인 대두(HS 1201)의 2023년 수입액은 6만달러로, 2021년 590만달러, 2022년 396만달러보다 한참 줄어들었다.

[그림 7] 북한의 대두유 대비 팜유 수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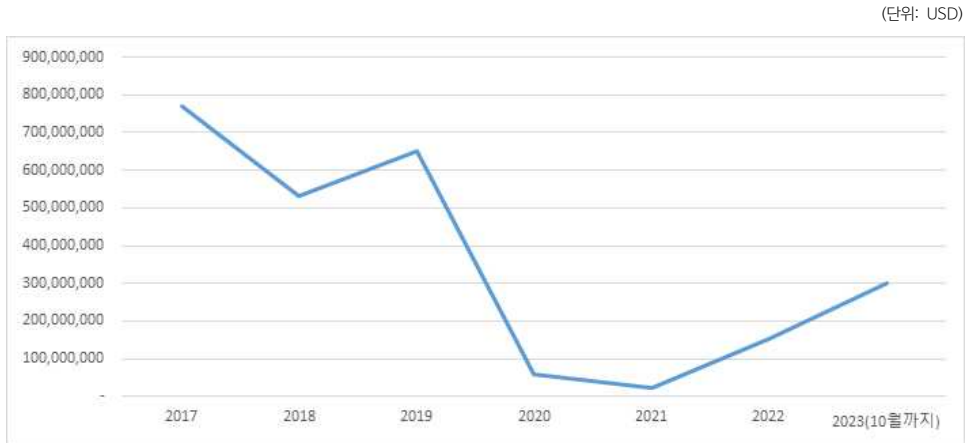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4. 1. 22).

팜유(HS 1511)의 2023년 수입액은 2,953만달러로, 2022년 수입액인 1,220만달러에 비해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2019년 수입액인 1,606만달러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림 7]은 북한의 대두유와 팜유의 수입 비율을 금액과 물량 측면에서 각각 제시한다. 2021년 특이점을 제외하면 대두유 대비 팜유의 금액과 물량의 비율 모두 2017년 이후 상승 추세로 나타난다. 팜유는 대두유의 대체재이면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해당 비율의 증가 추세는 북한주민의 소득이 하락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비싼 대두유 대신 값싼 팜유를 대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023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품 상위 네 번째 품목은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HS 5407)’로, 수입액 8,090만달러, 비중 4.0%를 차지했다. 해당 제품은 임가공 의류 생산을 위한 대표적인 산업 중간재로, 북한 의류 산업의 생산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을 포함하여 의류 생산을 위한 편직물 수입액의 연간 추세를 살펴보면 [그림 8]과 같다. 북한의 대중 편직물 수입액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22년 이후 반등하는 추세가 2023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북한의 의복 임가공 생산이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인 2017~19년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8] 북한의 대중 편직물 수입액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4. 1. 22).

광물성 화학 비료(HS 3105)의 2023년 수입액은 8,066만달러로 상위 5위 수입 상품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비료(HS 31) 수입의 대부분(98%)을 광물성 화학 비료가 차지하였다. 2022년까지만 해도 광물성 화학 비료보다는 질소비료의 수입이 더 많았으나, 2023년에는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2023년 광물성 화학 비료의 수입액은 2017년 이후 최대치로 나타났으며, 가격이 비싼 화학 비료의 수입 증가는 수요처인 북한 측보다는 중국 내 질소비료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15만달러, 2,534만달러의 광물성 화학 비료가 수입되었는데, 2024년 상반기에 사용될 비료를 선제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여섯 번째로 많이 수입한 품목은 '쌀(HS 1006)'로 나타났다. 2022년 3,321만달러(7만 5천톤)어치 수입되었으나, 2023년에는 7,681만달러(16만 4천톤)나 수입되어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이는 2019년의 수입 물량인 16.2만톤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외에도 밀가루(HS 1101), 옥수수(HS 1005) 등 곡물류의 2023년 수입이 2022년보다 크게 늘어났는데, 곡물류 수입의 증가는 북한 내부의 식량 사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상위 6위까지의 수입 품목 외에 주요 수입 품목은 다음과 같다. 담배(HS 24)의 2023년 대중국 수입액은 7,662만달러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2019년 수입액인 9,209만달러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의약품(HS 3004)의 2023년도 수입액은 5,871만달러로, 2022년 수입액인 4,083만달러는 물론 2019년 수준인 4,435만달러를 상회한다. 코로나19 방역전 승리 이후에도 의약품 수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무타이어(HS 4011)의 2023년 수입액은 4,111만달러로, 2022년 수입액인 4,392만달러에 비하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해당 상품의 대량 수입이 일정 수준의 수요를 충족시켰고, 이후 필요에 따라 수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용, 메이크업 제품(HS 3304), 샴푸 및 기타제품(HS 3305), 치약(HS 3306) 등 개인 위생용품의 수입은 2023년에 크게 증가했다. 해당 상품의 수입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누 등의 원료인 유기계면활성제(HS 3402)의 수입액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 위생방역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기조와도 일치한다.

### Ⅲ. 북한-러시아 경제 교류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외교적, 군사적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경제적 교류에 대한 논의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의 교역 데이터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교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언론 보도에 근거하여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 교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은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행 중으로, 침공당한 우크라이나는 물론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방의 도움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항전은 거셌고,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전쟁은 장기화되었다. 속전속결로 전쟁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러시아의 계획은 틀어졌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러시아의 경제상황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의 장기화로 러시아는 탄약 등 재래식 무기의 재고가 크게 하락하였고, 지속된 군인 징집으로 노동력이 크게 부족해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식량, 유류, 중간재, 자본재 등 필수 물자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sup>6)</sup> 북한에서는 경제를 총괄하는 오수용 경제부장과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박훈 내각 부총리가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 측에서도 국방부 장관 외에 산업통상부 장관, 교통부 장관, 천연자원부 장관 등 다수의 경제 관료가

<sup>6)</sup> 북, 경제난극복 러시아에 기댄다...식량·유류에 노동자 파견까지(<https://www.yna.co.kr/view/AKR20230913144400504?section=nk/news/economy>).

회담에 동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유류를 공급받고,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무기와 노동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호협력의 계기로 이 회담을 성사시켰다는 예상이 있다. 곧이어 10월 20일에는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에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하였고, 향후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 북·러 경제협력 등 다양한 교류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sup>7)</sup>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어 제재를 무시하고 상호 협력하는데 거리낌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서로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는 것이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2023년 10월 13일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이 컨테이너 1천개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9월 7일과 8일 북한의 라진항 해상 운송 컨테이너 위성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sup>8)</sup> UN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북한의 유류 공급량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9]와 같다. 이에 따르면 2022년 12월까지 러시아는 북한에 석유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 최근까지 유류를 지속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 내부의 소식을 전하는 전문 매체에 따르면 북한의 장마당에서 러시아산 쌀, 밀가루, 의약품 등이 유통되는 것으로 보인다.<sup>9)</sup> 김정은 위원장은 군수공장을 시찰하며 무기 생산 확대 계획을 수립하였고, 해당 공장에 배급이 이루어졌다는 소식도 들려온다.<sup>10)</sup>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러시아의 의류회사들이 여전히 생산활동을 지속하고 있거나,<sup>11)</sup> 북한이 신규 노동 인력을 선발하여 러시아 여러 지역에 파견하고 있다는 뉴스들도 보도되었다.<sup>12)</sup> 북한에서 파견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나,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의 입국 비자를 유학, 연수, 관광, 문화교류용으로 발급하여 제재를 회피하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북한과 러시아는 러-우 전쟁을 계기로, 공식적인 통계를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파악하기로,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방식의 경제 교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러시아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7) 북러, '전략적 신뢰관계'로 업그레이드...전방위 '밀착' 강화(<https://www.yna.co.kr/view/AKR20231020049300504?section=nk/news/all>).

8) 美 '北, 러에 우크라인 전쟁물자 줬다'...공개한 사진 3장엔(<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9290>).

9) 나선항으로 러시아산 물자 수입...일부는 벌써 시장에 풀려(<https://www.dailynk.com/202307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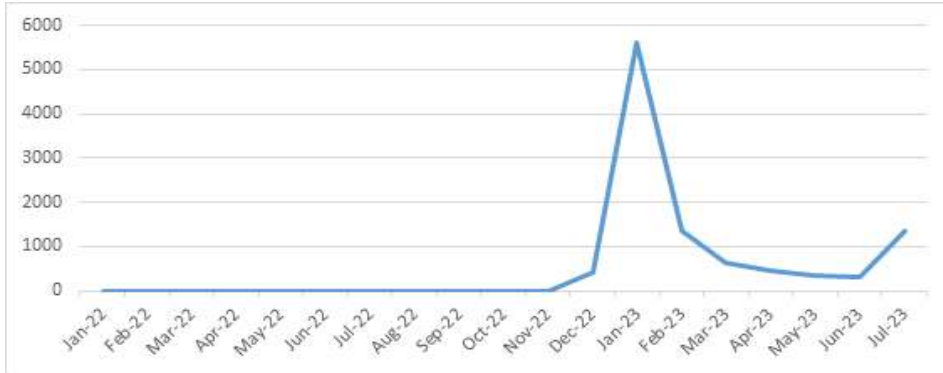
10) 김정은은 군수공장 시찰 뒤 대대적 배급 이뤄져...중산 주문도(<https://www.dailynk.com/20230823-5/>).

11) 러시아 내 北 파북회사들, 올해 들어 급증한 주문량에 '활기'(<https://www.dailynk.com/20230503-5/>).

12) 北, 러시아에 신규 노동 인력 파견...대북제재 구멍 커지나(<https://www.dailynk.com/20230428-1/>).

[그림 9] 러시아의 대북 유류공급

(단위: 톤)



자료: UN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supply-sale-or-transfer-of-all-refined-petroleum>, 검색일: 2024. 1. 22).

## VI. 2023년 북한의 대외교역 평가와 2024년 전망

2023년 북한의 대외교역은 2022년에 비해 수출과 수입 모두 크게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회복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약 8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나 북한의 대중수입의 회복세가 더딘데, 이는 대북제재 이후 부족한 외화 보유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북한의 주요 수출품에는 가발, 가수염과 같은 전통적인 임가공 제품, 텅스텐광과 몰리브덴과 같은 비철금속 광물과 같은 제품이 있다. 이들 제품은 제재와 무관한 품목으로 제재 이전 기존의 수출품이던 임가공 의류와 무연탄, 철광석을 대신하여 대체 수출품으로 발굴되었고, 코로나19 이후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중 가발, 가수염은 2023년 북한의 대중수출품 비중 57%를 차지하며 최대 수출품으로 부상하였다. 이 외에도 합금철과 생사와 같이 대북제재 대상 품목임에도 여전히 수출되고 있는 상품들도 있다.

2023년 북한의 주요 수입품은 플라스틱, 가발용 재료, 직물, 화학 비료, 고무 타이어와 같이 산업 생산의 중간재로 활용되는 품목과 쌀, 대두유, 개인 위생용품, 담배, 의료용품과 같은 소비재 등이 있다. 건설업 등 산업의 중간재로 활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최대 수출품으로 부상한 가발, 가수염용 재료의 수입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간재의 수입 증가를 통해 해당 산업의 생산활동 회복세를 엿볼 수 있다. 쌀과

옥수수를 포함한 곡물류의 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대두유, 팜유, 설탕, 조미료 등 주요 식료품의 수입 역시 늘었다. 곡물 및 식료품 수입 증가는 북한주민의 식생활을 개선시켰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23년 북한은 중국 외에 러시아와 군사, 외교, 경제 분야의 협력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북한의 대외교역을 포함한 경제상황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2년 2월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국력은 상당히 소모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적, 경제적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역시 장기화된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봉쇄로 식량, 산업 중간재 등 필수 교역품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두 국가는 재래식 무기, 노동력과 식량, 유류, 그리고 군사기술 등을 주고 받았거나, 거래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북·중 화물열차와 몇몇 접경 지역의 화물 트럭 운행이 재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큰 비중을 차지했던 단둥-신의주 간 화물 트럭 운행은 여전히 중단된 상황이다. 게다가 인적 왕래 역시 중단된 상태에 머물고 있어, 향후 북한의 대외교역 상황이 크게 나아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외무역이 정상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는 대북제재 이전(2016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상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 대북제재가 해제되어 북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수입 역시 크게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러시아는 물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하마스 측에 불법적으로 무기를 제공하여 외화를 획득하거나 식량, 에너지 등의 품목을 도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어업권 판매나 암호화폐 탈취 등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외화를 획득하려는 시도를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외화 보유 상황은 북한의 대외교역의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sup>13)</sup>

2024년 북한의 대외무역 상황은 내부 경제상황,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내부 요인 외에도 한반도 상황, 미국과 중국의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진행 상황 등 여러 외부 요인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식량 생산 상황에 따라 쌀 등 곡물의 수입규모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북한이 핵실험이나 국제사회

13) 북한은 장기간 동안 교역수지 적자를 면치 못했으나 그 외에 서비스수지나 소득수지 등 다른 항목의 경상수지에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를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상수지는 적자인 교역수지 외에 해외 노동자 임금 수입과 같은 소득수지, 관광수입이나 어업권 판매와 같은 서비스 수지, 국내 탈북자 송금과 같은 경상이전수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규모는 파악이 어려우나 교역수지 적자가 장기 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감내할 수 있는 것은 교역수지를 제외한 경상수지 항목에서 교역수지 적자 규모를 만회할 만한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자관 도입 등 자본수지 역시 북한의 외화 보유 상황과 관련이 높으나, 이 역시 제재 이후 공식적인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 우려할 만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또한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따라 미중 갈등의 양상과 북미관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러-우 전쟁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결론 날지에 따라 북한의 대외교역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4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나아지면서 회복되는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규철, 「지속된 코로나19와 북한의 대외무역: 2021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 1월, 2022.
- \_\_\_\_\_, 「북한의 무역은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할 것인가?: 2022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1월, 2023.
- 한반도경제협력원, 『북한경제 연례평가』, 2024.

### <기사자료>

- 『데일리 NK』, 「北, 러시아에 신규 노동 인력 파견...대북제재 구멍 커지나」, 2023. 4. 28.
- \_\_\_\_\_, 「러시아 내 北 피복회사들, 올해 들어 급증한 주문량에 '활기」, 2023. 5. 3.
- \_\_\_\_\_, 「나선항으로 러시아산 물자 수입...일부는 벌써 시장에 풀려」, 2023. 7. 19.
- \_\_\_\_\_, 「김정은 군수공장 시찰 뒤 대대적 배급 이뤄져...증산 주문도」, 2023. 8. 23.
- 『연합뉴스』, 「훈춘~北나선 육로통행 부분 재개」, 2023. 1. 8.
- \_\_\_\_\_, 「북, 경제난극복 러시아에 기대다...식량·유류에 노동자 파견까지」, 2023. 9. 13.
- \_\_\_\_\_, 「북-중 잇는 신압록강 대교 차량 이동 급증...개통 임박」, 2023. 10. 14.
- \_\_\_\_\_, 「북러, '전략적 신뢰관계'로 업그레이드...전방위 '밀착' 강화」, 2023. 10. 20.
- \_\_\_\_\_, 「신압록강대교 개통 임박이요? 현지 실정 모르는 소리」, 2023. 10. 21.
- 『중앙일보』, 「美 "北, 러에 우크라진 전쟁물자 줬다"...공개한 사진 3장엔」, 2023. 10. 13.

### <웹사이트>

-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4. 1. 22).
-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supply-sale-or-transfer-of-all-refined-petroleum>, 검색일: 2024. 1. 22).